



# 생활응급

## ■ 생활응급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비교적 무관심한 형편이다. 교통사고로 5만 명 이상이 사고현장에서 1시간 이내에 사망하고, 갑자기 발현하는 심근경색증 환자의 많은 경우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응급처치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일반인들은 119라는 전화번호에 매우 익숙하고, 응급환자를 신고한 후 5분 이내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므로 일반인들은 응급처치가 단순히 의료인의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응급처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더라도 그릇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일반인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빈번하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광고카피가 있듯이, 자신의 그릇된 판단이나 잘못된 응급처치로 인하여 자신의 가족, 동료 등이 사망하거나 평생을 불구로 지낸다면 자신도 얼마나 불행한 삶을 보내야 하는가?

## ■ 벌에 쏘여서 사망하는 환자가 뱀에 물려서 사망하는 환자보다 많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알레르기 질환(알레르기성 비염 혹은 결막염, 음식물 알레르기, 약물 알레르기 등)이 있는 사람들 중 벌에 쏘인 사람의 10% 정도가 알레르기 반응이 발현하며, 일부는 15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일반인들이 벌에 쏘인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1~2시간 정도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은 언제라도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간단한 의료상식을 일반인들에게 알린다면 많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 ■ 1년에 수백 명의 환자가 사탕이나 음식물(고기) 때문에 죽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는지요?

취학기 이전의 어린이나 치아가 건전하지 않은 고령자들이 사탕이나 고기(육류)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사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소아에게는 사탕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드롭프스를, 고령자에게는 잘게 썬 고기를 제공하여야만 기도폐쇄(氣道閉鎖)에 의한 갑작스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기도(氣道)가 막히는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4분이 경과하면 뇌가 손상되거나 사망하게 되므로, 혹시 이러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이전에 기도의 이물을 제거하는 응급처치(하임리히법)를 직접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 ▣ 일반인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응급처치는 없는가?

이미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사건이지만, 목포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로 허리의 통증이 있는 환자를 무리하게 항공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척추신경이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현장에 파견된 민간요원들의 무지로 인해 한 여인의 인생이 평생 불구자로 뒤바뀐 대표적인 사례였다. 즉, 외상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식(생활응급)이 부족하여 오히려 환자를 더욱 불행하게 만든 것이었다.

자동차 사고 시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인이 많은데,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5~10분을 기다리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인 것이다. 당뇨병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 설탕물이나 사탕을 먹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일반인이 많은데, 이러한 응급조치는 오히려 기도를 폐쇄시키거나 폐렴을 유발하여 환자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 ▣ 생활응급이란 의료적인 처치만을 의미하는가?

과거에는 생활응급이 심폐소생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인 응급상황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상식, 대처하는 방법, 기본적인 응급처치 등을 '생활응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호흡장애나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상황에서는 최초의 5분이 매우 중요하며, 교통사고

등과 같은 외상에서는 최초의 1시간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인들에 대한 생활응급의 보급에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인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일반인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 외국에서는 응급의료에 대한 상식, 응급환자 신고방법,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법 등을 일반인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으며, 생명과 직결된 응급처치법에 대하여는 중·고등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에 매년 15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 ▣ 생활응급의 보급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별에 쏘인 경우라도 간단한 상식만 알고 있다면 죽음으로부터 자신 혹은 가족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현장을 목격하거나 환자를 접한 일반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의 미래는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예로서, 심근경색증에 의하여 심실세동이 발현한 경우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일반인들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보다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면 환자가 생존할 확률은 5~10배 높아진다.

간단한 생활응급을 일반인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일반인들은 자신 혹은 가족의 생명을 최대한 지키면서 막대한 의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가는 사망자나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보건의료비용(의료보험 지원비용을 포함)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일반인들에 의한 생활응급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였기에, 심장질환에 의한 심장마비 환자에게도 일반인들이 현장에서 제세동(전기충격)을 시행할 수 있는 연구(public access defibrillation)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출처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